

기차 명상 여행으로 '힐링'

무인 김천 직지사역 문화공간으로 탄생

기차에서 명상할 수 있는 이색 열차 병당이 탄생했다. 직지사는 10월 31일 코레일 대구본부와 직지사 종무소에서 직지사역 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직지사역은 지난 4월 2일부터 직원이 근무하지 않는 무인역이 되면서 사람의 발길이 끊어진 상태다. 하지만 지난 6월 코레일에서 시행한 국민 공모전에 직지사 스님들이 '직지사역을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힐링 쉼터로 만들겠다'는 제안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명예역장을 맡은 직지사 총무국장 장명스님은 "간이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코레일과 직지사의 취지가 잘 맞아 떨어졌다. 직지사역은 그 자체만으로 상징성이 있다. 아마도 이는 세계 최초의 열차 병당이 될 것이며 나는 세계 최초의 역장 스님이 된 것"이라며 소감을 전했다.

직지사는 열차 안에 명상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사찰음식 공간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합실 건물은 문화갤러리 청훈의 벽, 만남의 장소, 공연 무대, 커피숍 등으로 꾸며 관광객들을 맞는다. 여기에 역사와 이웃하고 있는 60평 건물은 직지사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 기관인 사니어클럽 사무실로 활용한다. 역 관리와 운영을 위해 어르신들을 고용해 노인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장명 스님은 "요즘 웰빙 바람이 부는 만



직지사는 10월 31일 코레일 대구본부와 직지사 종무소에서 직지사역 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열차병당을 운영할 예정이다.

직지사 코레일과 업무 협약 체결 열차 내 명상 공간 및 병당 마련 새로운 포교 문화 확산위해

큼 명상하며 사찰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은 현대인들에게 좋은 관광명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 어르신 일자리 창출은 물론 포도 등 지역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장터도 마련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계획을 밝혔다.

스님은 향후 사찰 이름을 가진 간이역들이 동참할 수 있는 운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장명 스님은 "요즘 지역문화가 많이 침체돼 있다. 간이역을 잘 활용한다면 좋은 관광 자원이 될 것이다. 조계종단 소속

사찰 중 백양사 회방사 등 7여 개가 간이역 이름으로 되어 있다. 이들을 연계해 사찰 투어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포교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1월 9일 코레일 측과 함께 자승스님을 방문해 이런 뜻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직지사는 새마을호 객차 2량에 나무바닥을 깔고 기둥을 세우는 인테리어를 거쳐 내년 초에 오픈식을 가질 예정이다. 장명 스님은 "근대 문화유산을 되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입장에서 작은 문화공간 확보와 활성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간이역사의 새로운 변신은 무척 의미가 있다. 또한 이런 운동에 불교가 적극 나선다면 포교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정혜숙 기자 bwjsh@hyunbul.com

통도사 수륙대제 방생법회

영축종림 통도사가 본말사 수륙대제 방생대법회를 10월30일 봉행했다.<오른쪽 사진> 이번 방생대법회는 경북 포항시 호미곶 새천년광장에서 1만여명의 사부대중들이 모여 '살아 있는 생명체를 죽이지 않는다'는 불살생계를 실천했다. 또한 난치병 어린이 돕기 및 다문화가족지원과 독거노인 지원 등을 통한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환원 법회로 이루어졌다.



통도사 주지 원산스님은 "일체생명은 평등하다. 어느 생명도 귀하지 않은 것이

이재진 부산지사장

노인전문요양원 무량수전 신축

영남불교대복지재단 준공식

한국불교대 대관음사 영남불교대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노인전문요양원 '무량수전'이 10월24일 신축 준공됐다.

영남불교대 복지재단은 10월24일 대구시 남구 봉곡동 한국불교대 대관음사 무량수전 앞에서 복지재단 대표이사 밀해스님과 임병현 남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

운데 무량수전 준공식을 봉행했다. 영남불교대학 복지재단은 기존의 무량수전 건물 2동 가운데 노후된 1동을 허물고 19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전 600 제곱미터 규모의 새 건물을 건립했다.

이로써 노인요양원의 입소 정원도 110명에서 150명으로 늘어났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태고종 종무원 수계대법회 봉행

태고종 대구교구종무원(원장 경목)은 10월 29일 팔공산 갖바위 시설지구 내 특설무대에서 대승보살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중정 혜초 스님은 "보살계는 개개인을

바른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불가의 덕목"이라고 전했다.

이어 진행된 영산재에서는 준법 스님이 법화경의 의미를 표현한 법패를 선보였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우리 것 알기는 사찰 제모습 찾기

조선시대까지 형성되어온 우리나라의 조영문화는 매우 독특하여 중국이나 일본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이렇게 고유한 조영문화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풍토가 그들 나라들과는 같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러한 풍토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달랐기 때문이다.

한국의 풍토에서 오랜 세월동안 형성되어온 한국고유의 조영문화는 36년간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왜곡되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 일본의 조영문화에 일방적으로 노출되면서 선택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탓일 것이다. 그 결과 건물이나 정원과 같은 조영물에서 일본성을 가진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일본인들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

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자발적 성과이기도 했다.

사찰이라고 이러한 일본양식의 침범을 벗어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찰에서 일본양식의 건물이나 조경구조물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한 것들은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광복이 된 이후에도 꾸준히 만들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다. 그 이유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에게 기술을 전수받은 기술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기술자들은 한국의 고유한 조영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무비판적으로 불사에 참여하여 우리 사찰의 경관적 정체성을 훼손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최근에 환구단의 일본식 석등을 철거한다는 문화재청의 발표는 우리 것 찾기의 노력이 이루어낸 하나의 커다란 성과이다. 이렇게 우리의 것을 되찾는 운동에 사찰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불교문화재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우리의 전통사찰에서 일본양식을 가진 많은 것들이 우리의 전통양식으로 바로 잡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그러한 것들이 적지 않게 남아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우리 것 찾기 운동이 일제강점기의 건축이나 조경구조물을 무조건 없애고 우리의 것으로 갈아치우는 운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의 조영성이 우수하고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보존하는 것이 맞다.

우리 것 찾기 운동은 우리 것 알기운동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것 알기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전통사찰이 제 모습을 갖추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통도사에 축조되었던 일본양식의 석등은 이제 전통양식으로 수리되어 한국성을 찾게 되었다.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동방칠성교주,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계하고 있다.

알기 쉬운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 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강의 일정표

-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법칙
- ◆ 제 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통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72길 ☎ 전화 010-7415-0803 / 051)343-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자비실천불교연합회>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